

신기술 향연 전세계 눈호강 'MWC' 폐막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



더 높이 날아라
지난 28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허나스퀘어 이트리움에서 열린 2016 고려대학교 드론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가상현실(VR) 인기 스마트폰 신작 경쟁 中 IT기업 폭풍성장

세계 최대 모바일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가 막을 내렸다.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올해 MWC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MWC 사전 등록자만 9만4000여 명으로 현장 등록자 등을 포함하면 10만여 만명이 MWC 부스를 오갔다. 참가 업체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9회째 열리는 MWC 슬로건은 '모바일이 전부다(Mobile is Everything)'였다. 급성장한 모바일 산업을 반영하듯 MWC 현장엔 '모바일의, 모바일에 의한, 모바일을 위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각축전이였다.

올해 MWC를 달군 뜨거운 이슈를 ▲가상현실(VR) ▲전략 스마트폰 ▲중국 등 3대 키워드로 정리한다.

◇조언에서 주연으로 떠오른 VR
VR은 MWC 최고의 콘텐트였다. 그동안 인간의 시각 콘텐트가 텍스트와 평면에 머물렀다면 ICT 기술 발달 속에 360도 입체 영상으로 범위가 확장됐다.

MWC 현장 곳곳에서 VR 전용 글래스를 끼고 환호성을 지르는 관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은 놀이기구처럼 탑승해 VR을 체험하는 공간을 운영해 전시장을 연설했다.

삼성과 LG전자는 가상현실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디바이스 '기어 VR'과

'360VR'을 각각 공개했고, 웨일과 인텔 등 외국 유수 기업들도 최신 VR 기기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다만 올해 MWC는 VR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보여줬다. VR의 극복 과제로는 무게와 착용감, 회전 지연(Latency), 어지럼증과 멀미, 콘텐츠 부족 등이 꼽힌다.

◇ '내가 스마트폰 1등' 전략 디바이스 전쟁

삼성전자 '갤럭시S7', LG전자 'G5' 등 전 세계 유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작 경쟁도 MWC 무대를 달렸다.

LG전자는 MWC에서 처음으로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보다 5시간 먼저 신작을 드러냈다. LG전자는 전자 G4의 참패 속에 G5로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고 기대 이상의 반응을 이끌었다.

G5는 탈착식 배터리, 카메라, 폴메탈디자인 등을 갖췄다. G5와 연계돼 사용할 수 있는 'LG 프렌즈'도 특징이다.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과 감상 기기,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 역대 최고 수준의 넓은 화각 등이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갤럭시S7은 갤럭시 시리즈의 어미어미한 명성을 승계한 모범적인 모델이었다. 갤럭시S7(5.1인치)과 갤럭시 S7 엣지(5.5인치)는 최고급 DSLR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인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사용,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

생활형 기능도 특징이다. 갤럭시S7과 갤럭시 S7 엣지는 방수와 방진 최고 규격인 IP68 등급을 적용, 먼지와 물의 유입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를 구현한다.

◇대륙의 '실수'에서 '실력'으로 중국 맹공세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점점 두드러진 점도 올해 MWC 특징이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 IT 업계 1위를 노린다.

화웨이, ZTE 등 중화권의 참가 기업만 227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참가 기업만 아니라 부스 운영과 신제품 발표 규모도 애플과 삼성전자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샤오미는 MWC 행사장 밖에서 전략 스마트폰 '미8'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8은 웨일과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820을 탑재해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다. 5.1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400만 화소 전면카메라, 3000mAh 고정 배터리 등의 사양도 특징이다.

화웨이는 MWC 메인 전시장인 홀3에서 대형 부스를 마련했다. 화웨이 부스는 삼성전자 맞은 편에 자리 잡았다.

올해 화웨이는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결합한 '메이트북'을 발표하며 비즈니스 고객과 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선보였다.

중국 기업들은 디바이스뿐 아니라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뽐냈다.

차이나 모바일과 ZTE는 중국의 5G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두 회사가 꾸민 MWC 부스는 중국 색채가 짙게 물어들었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기업 '차이나 모바일(中國移通)'의 상빙 회장은 22일(현지시간) 열린 MWC 기조연설에서 5G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빙회장의 중국어판이 가득 땀 영어 연설은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상빙 회장은 "2020년 전 세계가 5G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은 5G 상용화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고 2020년에는 10억개가 넘는 중국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며 거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석달째 상승세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과 국내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집담대출 금리가 3%대에 육박하는 등 가계의 일반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은 연 3.49%로 전월보다 0.03%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1달째 오름세다.

이중 기업대출 금리는 연 3.57%로 전월보다 0.05%p 내려갔으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28%로 전월대비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기타대출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집담대출 금리는 0.1%p 뛰어올라 연 2.98%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집담대출 금리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7%p, 0.09%p 상승했다.

최영업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은행들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취급액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자율주행차 지원위해 정밀도로지도도 무료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정밀도로지도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과 도로시설, 표지 시설 정보를 정확도 25cm로 제작한 전자지도다.

정밀도로지도는 위성측위시스템(GNSS), 카메라 등 각종 센서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구글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들도 노키아의 지도서비스 '히어(Here)'를 인수했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려면 직접 정밀도로지도도 제작해야 하지만 예산 기술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난해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시험운영기간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밀도로지도도를 시범 제작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범위는 시험운영구간 중 고속도로 1개 구간(42km), 일반국도 3개 구간(180km)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주행시험로(13km) 등이다.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일반도로 2개 구간은 올해 상반기중 제작한 후 제공할 계획이다.

/안진수 기자

OK저축은행, 대학생에 1학기 장학금 수여

OK저축은행은 최근 러시아에서 배구단 홈 경기장인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제4회 행복 나눔 등록장애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행사는 러시아에서 배정정확회가 주관했다. 아프리카서비스 그룹은 이 장학회를 출연했고 자회사인 OK저축은행과 러시아 연개시 등은 매년 30억원을 장학회에 기부해 왔다.

이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학생들을 추천받아 선발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는 행사다.

OK저축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7000명의 추천자 가운데 8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진수 기자

정부, 문화·콘텐츠 사업 5조원 넘게 투자

연계펀드·클라우드펀딩 조성 등 집중 육성

정부가 5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풀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클라우드펀딩과 직·간접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위한 금융 컨설팅, 문화에 특화된 금융 접근을 늘어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자금 공급을 늘리고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확장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의 문화·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먼저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정책 자금 5조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규모다.

자금 지원은 산업은행과 KB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대출 2조2000억원, 보증 3조1000

억원, 투자 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한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에 200억원 규모의 '콘텐츠가치평가 연계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펀딩, 직·간접 투자, 수출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은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문화 산업 투자에 나서고 기존도 1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를 조성해 청양 시작단계부터 모집 금액의 10~15%를 먼저 투자하게 된다.

수은도 제작 기간이 필요한 문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수출 계약을 맺기에 앞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시 개념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도 기업이 개설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